

# 목표하는 대학 선발방식 꼼꼼히 살펴야

## ■ 현 고2 대입 준비 어떻게

### 2015개정교육과정 첫 적용 ... 정시·수시 모두 잡아야 내 학생부 확인해 어떤 전형에 더 집중해야할지 판단을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면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의 대학 입시가 시작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을 처음 적용 받은 현 고2 학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선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정시 선발 비중이 다소 높아졌지만, 주요 대학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시와 정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현명한 대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선발구조 확인부터 하자 =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2021학년도 대입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42.3% ▲학생부종합전형 24.8% ▲는술전형 3.2% ▲수능위주전형(정시) 20.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언뜻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크지만 이는 전국 대학의 평균으로, 수도권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율은 이와 차이가 있다. 대학 간 차이도 커 목표하는 대학의 선발구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의 선발방식은 같은 학생부종합이나 정시 전형이라고 해도 서로 다르다. 2021학년도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은 기회균등과 같은 일부 선발인원을 제외하고 1단계 서류 평가 이후 2단계에서 면접을 치러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동일 전형에서 면접 없이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서류 평가에서도 서류 제출 시기, 자소서 유무 등이 다르며, 면접 반영 비율도 상이하다.

정시에 있어서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반영 비율이나 등급 간 점수차

이가 다르다. 서강대와 같이 인문계열 모집단위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크게 강조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고2 학생들은 각 대학이 발표한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통해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의 선발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게 진학사의 설명이다. 2021학년도에는 선발 방법에 변화를 주는 대학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내 학생부 미리보자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여전히 선발 비중이 큰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본인의 학생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시기는 고3 여름방학 이후인 경우가 상당

수다. 입시전문가들은 이 시기 학생부를 점검하는 것은 다소 늦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직 2학년까지 기록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기록된 것을 토대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거나 부족한 점을 만회할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또 주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훌륭한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어 각 대학의 학생부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대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전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선배들의 수능이 끝난 뒤 자신이 어떤 전형에 더 집중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조선대, 학생·지역청년 독일취업 지원



### 조선대·KOTRA 유럽본부 취업지원 위한 MOU 체결

조선대학교가 최근 본교 학생 및 광주 지역 청년들에게 독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프랑크푸르트 유럽지역본부(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는 최근 개최된 '2019 한독 취업박람회(2019 Frankfurt Job Fair)'에서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지역 청년 구직자의 독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일은 근래 들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독일은 EU 국가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도 취업시장을 개방해 노동비자 요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독일기업의 구인

수요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구인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조선대는 KOTRA 유럽본부·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지난 14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이여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현대, 삼성, LG, CJ, 한화, 아시아나, 하나투어 등 독일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과 Inbody, EUKO, HASS, AIF 등 독일에 설립된 한국계 회사, 코트라, 한전의 독일지사 등 공공기관, Hilton 등 독일 호텔 2곳 등 총 28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15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조선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독일이 집중교육과 독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청년들의 독일 취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아버지 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교육 참여자 모집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2019 아버지 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버지 교실은 광주지역 아버지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중요성,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시대별 아빠의 역할변화,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코칭 등 전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에 걸쳐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오후 7시 시작한다.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에 전화로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대, 지역 청소년 '건강한 성장' 돕는다



광주대 호심인재개발원 대학생활상담센터는 21일 학교 호심관 집단상담실에서 지역 내 청소년 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주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2019학년도 제2기 꿈꾸는 공작소' 운영

### 광주시교육청 21일~11월 15일

광주시교육청이 21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4주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2019학년도 제2기 꿈꾸는 공작소'를 운영한다.

꿈꾸는 공작소는 광주지역 1-2학년 고교생들이 해당 대학을 방문해 전공 교수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

용·복합형 강좌로, 고교-대학 연계 맞춤형 진학 설계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생부종합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에 대비하여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별도의 평가 없이 70% (11시간) 이상 출석하면 이수할 수 있다.

이번 2기에는 총 1412명의 학생이 신청해 1014명이 선정됐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대학과 개설 강좌수는 광주교대 2개, 광주대 5개, 광주여대 4개, 남부대 2개, 동신대 4개, 광주보건대 3개, 전남대 5개, 조선대 5개, 한국폴리텍광주캠퍼스 5개, 호남대 5개 강좌 등이다.

인기 강좌는 1위를 기록한 '경찰 물리력 사고 한계' (조선대)로, 30명 모집에 103명이 신청해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 속의 물리 속속' (전남대)도

30명 모집에 9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간호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호남대) 역시 20명 모집에 67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우재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꿈꾸는 공작소가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어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생들이 더 다양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동강대, 올 축제 시민과 함께 즐긴다

### 23~24일 총학생회 주최 '범두 대동제' 개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올 대동제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가을 축제로 꾸민다. 동강대는 오는 23~24일 총학생회 주최로 교내 체육관 앞에서 '범두 대동제'를 개최한다.

동강대는 2019년 대동제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계획하고 학과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호텔조리영양학부는 거대한 참치 해체 쇼에 이어 초밥 시연, 육개장 시식 등 '푸드페스티벌'을 준비해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간호학과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시민들의 건강 지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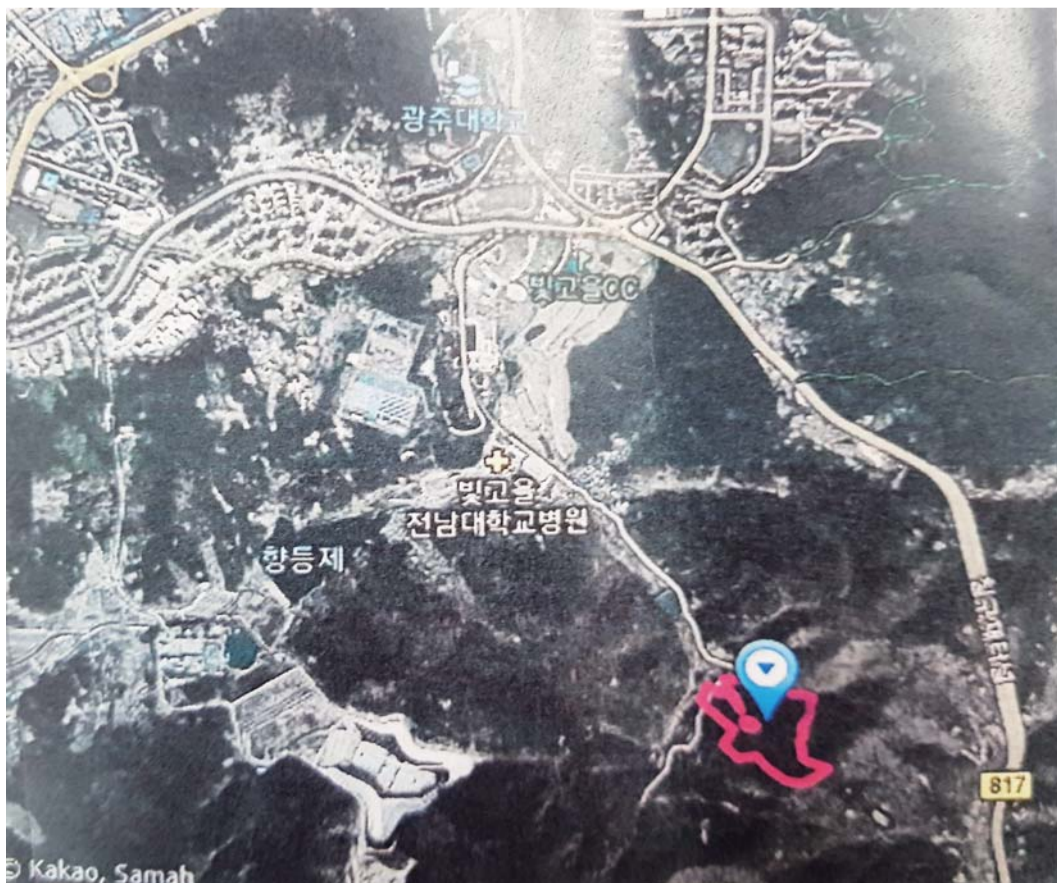
이로 나선다.

간호학과는 혈압·체온·체지방·체수분·근육량·골밀도 측정 등을 실시하고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스트레칭 요가, 타바타&점핑 순환운동, 그리드 운동 등 현대병을 예방할 수 있는 GX운동법을 알려준다.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신나는 스피닝시애틀 무대도 선보인다.

호텔관광과는 직업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카지노 딜러와 '나도 바텐더'·'나도 바리스타' 등을 통해 칵테일과 핸드드립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보도록 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